

경상수지 흑자 비율, 작년 7%대

한은 “유가하락 영향… 유가 상승국면에 접어들어 점차 예년 수준인 4~5% 정도 될 것”

한국은행은 최근 2년간 경상수지 흑자폭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것은 유가 하락에 따른 영향이며 향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점차 예년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 2015년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최고치를 찍었으나 지난해를 기점으로 꺾이는 모습이다. 다만 '역대 두번째' 규모를 기록할 정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경계감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율 조작국 지정'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1000억 달러를 넘나드는 흑자 규모는 우리나라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무부는 환율조작국의 요건으로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 비중 3% 이상 ▲한 방향의 반복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을 내세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중 앞의 두가지에 해당된다.

환율조작국 지정 위험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의미로, 최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에 대비해 흑자 비율 줄이기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3일 발표한 '2016년 12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누적된 흑자규모는 986억 8000만 달러로, 19년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이는 사상 최대 흑자를 냈던 지난 2015년(1059억 4000만 달러)에 이어 역대 두번째 규모다.

월별로도 지난해 12월 78억 7000만 달러의 흑자를 내며 2012년 3월부터 58개월 연속 사상 최장 기간의 흑자를 이어갔다.

지난해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7% 수준이다.

정규일 경제통계국장은 “지난해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7% 내외로 이 중 유가요인이 상당하다”며 “통상 국제유가가 10달러 하락하면 경상수지 흑자는 80억~86억 달러 개선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즉 지난해 평균 국제유가가 배럴당 41달러로 전년 51달러에 비해 10달러 하락하면서 경상수지가 86억 달러 가량 개선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은은 지난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국제유가 등의 영향으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올해 810억 달러, 2018년 780억 달러로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올해 평균 국제유가를 지난해보다 10달러 높은 51달러로 전망하고 있다.

정 국장은 “역으로 말하면 유가가 10달러 오르면 흑자가 86억 달러 정도 줄어든다는 것으로 유가가 상승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예년 수



지난 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정규일 경제통계국장이 2016년 12월 국제수지(잠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준인 4~5%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지난해 경상수지는 GDP 대비 7% 내외 수준인데, 환율조작국 기준은 3% 수준”이라며 “(환율조작국에 지정되지 않으려면) 아직도 상당히 많이 내려가야 하는데, 여기에 미치려면 유가가 굉장히 상승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은이 지난달 내놓은 '2017년 경제전망'에서도 우리나라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지난해 7% 내외에서 올해 5%대 후반, 2018년 5% 내외로 하락하는 등 점차 장기균형 수준

인 3~4%로 이행할 것이라고 봤다. 유가하락 이전인 2010~2014년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평균 4.1%다.

한편 한은은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아직까지 대중국 수출에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수치상으로 볼 때 반도체, 화장품, 기계류·정밀기기 등 우리 주요 수출품목에 아직 별다른 영향은 없다”며 “다만 수출보다는 여행객, 한류스타 공연 등을 포함하는 서비스 지수 쪽에서 영향이 있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연장 추진

민병두 의원, '3년 → 5년으로' 상법 개정안 발의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당사채권의 소멸시효 5년에 비해 짧다. 이런 탓에 2010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보험회사가 소멸시효 완

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거절한 건수는 3만여건, 액수로는 110여억원에 달했다.

민 의원은 “보험청구권이 여타 청구권의 소멸시효보다 짧게 규정돼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많은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상법 개정으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특검, 금융위 첫 압수수색 진행

자본시장국·부위원장실 조사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금융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금융위 출범 이후 처음이다.

특검팀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 자본시장국 컴퓨터를 조사하며 금융위 상장과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등에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금융위 사무실 일부 및 세종시 공영위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삼성그룹의 뇌물과 미안파 공작개발원조(ODA) 수사 등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특검이 부위원장실을 조사한 것은 정찬우 한국거래소이사장이 금융위 부위원장직을 최순실씨를 도운 하나은행 인사 승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화 하나은행 글로벌영업2본부장은 독일법인장으로 근무하며 2015년 학생신분이던 정유라씨에게 38만 유로를 연 0.98%의 금리로 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이 본부장은 서울 서초동 삼성타운지점장으로 발령된 뒤 현재 임원 자리에 올랐다. 때문에 이 본부장의 승진에 앞서 대통령령의 지시를 받은 청와대 인사가 금융위에 압력을 행사했고, 당시 부위원장이었던 정 이사장이 김정태 하나금융그룹회장에 부탁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뉴시스

'단통법'에 요금인하 압박 직면한 이동사들

마케팅비 총 1조1633억 감소, 실적은 상승세… “요금인하로 이어져야” 목소리 커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 3사가 2년 동안 단말기유류개선법(단통법) 등으로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절감한데다 수익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통신사들이 통신요금을 인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16년 마케팅 비용으로 2조9530억원, KT는 2조7142억원, LG유플러스는 1조9515억원을 썼다. 총 액수는 7조6587억원으로 2015년(7조8668억원)에 비해 2081억원 감소했다.

각 사별로 살펴보면 SK텔레콤은 전년 대비 마케팅 비용이 1020억원, KT는 990억원, LG유플러스는 471억원 감소했다.

이통 3사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을 규정한 단통법(단말기유류구조개선법)이 시행된 2014년부터 마케팅 비용을 대폭 줄이고 있는 추세다.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이통 3사가 줄인 마케팅 비용은 1조1633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소비자에 대한 차별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지난 2014년 10월 이동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했다.

2014년 이통 3사의 마케팅 비용은 8조8220억원에 달했지만 이듬해에는 9552억원이 감소한 7조8668억원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7조6587억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2014년 SK텔레콤은 3조5730억원,

KT는 2조8132억원, LG유플러스는 1조9515억원의 마케팅 비용을 집행했고, 2015년에는 SK텔레콤이 3조5500억원, KT 2조8132억원, LG유플러스 1조9886억원을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통신 3사의 실적(별도재무제표 기준)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은 2016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4% 늘어난 1조7822억원, 당기순이익은 10.0% 증가한 1조2172억원을 기록했다. KT와 LG유플러스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각각 1조596억원, 855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에 비해 KT는 22.7%, LG유플러스는 16.9%의 성장세를 달성했으며,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8.4%(KT·1472억원), 63.1%(LG유플러스·1873억원)가 늘어났다.

통신사들은 '마케팅 깎기' 전략을 고수할 계획이다. KT는 “올해 마케팅 비용을 2조5000억원 이내로 통제할 계획”이라고 했고, LG유플러스는 “작년에 마케팅 비용에서 매출 대비 22% 이하로 최대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마케팅 효율을 21%까지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실적 향상 요인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단통법에 따른 마케팅 비용 감소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동사들이 통신요금을 인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에 대해 “통신사들이 연구개발이나 시설투자 등에 막대한 재원을 쏟아붓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같은 성과를 거둔만큼 소비자들에게 그 혜택을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통신요금을 적극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뉴시스

어려운 영재 청소년 '꿈 발표회' LG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는 후원하고 있는 영재 청소년들을 경기도 파주 사업장에 초청, '희망날개 꿈 발표회' 행사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2012년부터 월드비전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을 펼치지 못하는 예능·이공계 청소년 영재들을 육성하기 위해 임원들이 매년 기금을 조성, 연간 교육비를 후원하는 '희망날개 재능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74명의 학생들에게 약 5억원의 지원했으며 후원을 받은 영재들은 각종 대회 수상은 물론,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입학하거나 주니어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등 꿈을 향한 발판을 착실히 다져가고 있다.

이날 열린 희망날개 꿈 발표회에서는 2016년 지원 받은 청소년 16명이 그동안 대회에서 수상한 미술, 로봇 작품 등을 전시하고 판소리, 성악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다. LG디스플레이 임직원 및 희망날개 졸업 학생들과 토크쇼 형태로 꿈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태어날 때 뇌 손상으로 발달장애를 가졌지만 남해성 판소리대회 및 남도 민요 경창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차세대 소리꾼으로 주목 받고 있는 장성빈 학생(전주예술고 국악과)은 “나를 믿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하고, 그 덕분에 꿈을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